

철학사상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지식지배사회의 빛과 그늘』 발표문 요약

지식의 지배: 성격과 과제

김남두 (서울대 철학과)

오늘날 지식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 자리잡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를 지식 지배 사회라는 말로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지식이 삶을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식과 지배가 연결된다는 생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된 생각이다. 이 생각이 체계화된 것을 플라톤의 ‘철인통치’와 베이컨의 ‘새 아틀란티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철인왕은 각각의 전문지식들을 통괄하는 전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국가의 공동선이 실현되도록 다스리는 사람이며, 베이컨에게서 정치가는 관직에 종사함과 동시에 학문에 몸담음으로써 신의 창조 작업에 함께 하는 자로 규정된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배에서 지식이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배는 기본적으로 구성

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업이며, 그것은 그런 요소들에 대한 앎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식의 지배를 지식을 가진 자의 지배와 구분할 수 있다. 지식의 지배를 지식 자체의 지배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지배는 의지를 가진 존재자의 행위로 이해되지만, 자연법칙의 지배라는 말의 경우에서와 같이 의지적 존재의 개입 없이도 지배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자연 법칙에 완전히 종속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인간의 행위는 일면 자연의 법칙에 구속받고 있지만, 그것에만 이끌려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필연과 선택이라는 인간 행위가 처한 양면적인 상황에서 자연의 필연을 인식하여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요청에서 지식이 성립된다. 각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던 자연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하나의 체제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 지식의 지배라는 말은 우선 자연 과학의 이와 같은 보편적인 확산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 혁명 이후 300년 동안 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

에서 서양 문자 문화의 전 역사의 맥락 아래에서 검토될 수 있다.

고대로부터 서양 학문의 체계화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는 분석은 설명의 대상을 그 요소들로 나누어 가는 작업이다. 그들은 분석의 작업을 통해 존재론과 인식론적으로 토대를 이루는 자기 동일적이고 불변적인 대상을 찾아내는 것을 탐구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며, 이 점에서 서양의 학문 체계란 동일성의 원리의 토대 위에서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서 있는 서양 문자 문화는 분석적 질서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이 동일성의 지반 위에 세워지고 체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문자 체계로서의 학문 체계는 문자를 통해 발화된 것, 즉 기억되고 보전되어야 할 사항들을 시간상의 보전과 기억을 넘어서는 체계, 즉 형상적 요인으로 나누고 그것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형상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양의 학문이란 시간을 이성을 통해 비시간화 하는 작업이다.

서양의 학문 체계가 가지는 초시간적인 보편성이 오늘날 서양 과학의 지식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성은 수학이라는 서양 학문의 기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체계화된 지식은 자연을 그것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당화됨에 따라 그 지식을 가지는 행위자

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명령자로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지식의 지배는 그 지식을 이용하여 자연을 개발하려는 사람에게 자연 스스로 명령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더욱 많은 것을 이용하려 함에 특정한 지식들은 점차 보편적인 지식으로 체계화되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이 체계화는 다름 아닌 수리화이다. 수학적 추론의 엄정성으로부터의 공유 가능성이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수리화된 지식이 제작과 결합하여 공학이 성립하는데, 이는 지식 지배의 또 다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은 오늘날의 지식은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의 설정과 추구 자체도 규제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대상들을 수리화시켜서 하나의 체계로서 성립시킨 지식은 인간 위에 명령자로서 군림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 지배 현상은 현대 문명의 규모가 부여하는 불안감의 증대와 맞물려 더욱 굳어지고 있다. 지식은 어떤 의미로 자기 증식 체제를 갖추고 그 지배의 범위와 강도를 더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가 가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에 기인한다. 수는 양의 크기를 표시하는데, 수로 파악된 모든 대상은 자

신의 모든 특징을 양의 크기로 나타내게 된다. 양은 질적인 특성이 가지는 측정하기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때문에, 특정한 모형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즉, 수리화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거대한 사회 현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수리 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체계를 지극적 단일 체제가 가지는 자기 유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식체계는 체계를 유지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세계는 여타의 공동체와 달리 그것을 넘어서는 심의 기관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지식지배가 가지는 한계이다. 지식은 그것이 과연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상위의 심급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반성해볼 수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단일화된 거대체제에 자기성찰적 기능을 부여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지식의 변화와 대학의 대응

김영식 (서울대 과학사-과학철학 협동과정)

1.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성격이 변했으나 대학은,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은 그같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지식의 변화는 대체로 대학의 밖에서 시작하며, 대학은 흔히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심지어는 저항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지식의 변화는 주로 대학 바깥의 사람들이 주도하고, 대학은 그같은 변화로부터 단절, 소외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이 지식의 변화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끝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결국 대학 외부로부터의 개혁의 시도가 있게 된다. 대학은 이에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받아들여 자체의 개혁을 꾀하기도 한다.

2. 사회는 결코 대학에 의한 지식의 독점을 허용치 않는다. 항상 대학 외부의 새로운 주체가 지식 창출 과정과 지식의 방향 결정에 개입하고 지식을 공유하려 하며, 때로는 새로운 대안적 지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들은 대학 밖에 안주하지 않고 대학이 이를 수용해서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대학 외부의 요구가 항상 타당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추진하는 개혁이

항상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처음 단계에서는 생경하고 성급한 개혁의 요구가 제기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같은 대학 바깥의 개혁의 요구들이 그같은 실패를 교훈삼고 경험에 바탕해 도전을 계속할 것이며 결국 어쩔수없이 대학이 이같은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3. 대학에 의한 사회적 요구의 수용이 크게 무리를 빚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때 그 사회의 학문, 문화의 발전은 순조로울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무리가 생기게 되고 사회 발전에도 큰 장애를 빚으며,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물론 그같은 피해가 대학 교수들에게 직접 즉각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이라는 제도의 속성상 교수는 대학 속에서 권위와 세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와 유리된 상태에서 대학 교수는 차츰 외부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지식을 추구하고, 그냥 대학 내부에서만만의 “권위”와 “세력”만으로 남게 되어 버릴 것이다.

4.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보인다. 우선 기존 분야들 속에서의 내용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내용, 새로운 이론, 틀 등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들이 등장하며, 기존 학문 분야들간 경계가 와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학분 분야들의 전문화, 세분화도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이 과거부터 얼마간 있어 왔던 데 비해,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두드러진 변화의 성격은 현재의 사회, 문화, 지식이 점점 “engineering”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5. 그러나 대학은 이같이 변화된 지식의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각 분야가 오랜 학문조직과 학과조직에 안주하여 옛틀을 고수하며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 물론 대학 체제의 어느 정도의 안정은 필요하며 그것이 학문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외부의 변화에 눈을 감은 채 전통을 고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도 사실은 이같이 변화된 지식의 상황과 전통적 틀에의 집착이 빚는 긴장을 반영하고 있다.

6.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두고 주로 두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경직된 학과 조직이 깨어지고 신축적이 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두가지 기능, 즉 인력양성과 학문연구가 서로 독립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고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먼저 사

회 전체로 볼 때, 단일한 한가지 유형의 대학 개념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호보완적인 대학 유형들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각 대학이 자신에 맞는 유형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대학내에서는 그 동안 확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단과대학-학과(학부) 편제에서 벗어나서 각 분야의 학문의 다양한 성격에 맞는 다양성이 받아들여진 교육 및 연구편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조직과 지식: 지식경영

안중호 (서울대 경영학과)

지식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지식경영이 지향하는 바는 새로운 지식창조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기업만족, 종업원만족, 고객만족 등 세 가지 모두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지식경영에는 문화, 전략, 프로세스, 정보기술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삼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지식경영이 조직 전체의 전략과 연계될 필요가 있고, 조직구성원들의 지식창출 및 공유활동이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경영 활동이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내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와도 전략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이 재설계되어야 하며, 지식창출 및 공유과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관리시스템이란 조직내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이다. 조직의 효과적인 지식관리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의 지식관리시스템은 첫째, 조직 내외부 정보 시스템들의 데이터, 정보에서부터 지식에 이르기까지의 인터페이스, 둘째, 지식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지식베이스와 지식스키마, 셋째, 사용자의 지식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 지도, 넷째, 개인간 또는 조직간의 지식교류를 위한 다양한 통신채널, 다섯째, 사용자의 지식활용을 위한 각종 분석 및 프리젠테이션 도구들과의 통합, 여섯째,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GUI 기능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국내 지식경영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암묵적 지식의 전자적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 둘째, 기존 경영혁신 방법론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것, 셋째, 기존 정보시스템과 차별성이 부재하다는 것, 넷째, 기술중심, 즉 Solution 지향적이라는 것, 다섯째, 성과측정이나 체

계적인 보상제도가 부재하다는 것, 여섯째, 언론기관이 장미빛 뭉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일곱째, 지식경영에 대한 자료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여덟째, 지식경영을 위한 사용자 검색 기능이 미약하다는 것, 아홉째,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식경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의 유지와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과 조직의 조화로운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지식경영은 경영혁신 방법론 중의 하나이다. 지식경영 자체만으로 기업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경영방법론보다 발전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식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가 강화되어야 유행으로 끝나지 않는 진정한 경영혁신 방법론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푸코를 위하여: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

최정운 (서울대 외교학과)

1970년대 중반 푸코는 근대 서구의 인간에 대한 실증과학분야가 17세기부

터 발달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는 이전에는 권력관계로 이해되지 않았던 부모-자식, 선생-제자, 의사-환자 등 일반적으로 '사랑'으로 이해되던 관계들의 권력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사회전체가 거대한 권력의 그물망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있음을 보여준다. 근대 이후 서구인들은 이러한 권력관계 속에서 자라며 권력에 의하여 그들의 정체성identity과 주체성subjectivity을 부여받는다. 푸코의 폭로는 그 자체로 비판적 함의를 갖지만, 그는 의식적으로 권력의 편재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근대 서구 권력의 어떤 특이성을 비판하며, 이것이 푸코 비판의 핵심이다.

17세기 등장한 새로운 권력은 중재자 arbitrator의 개입이 배제된 원시적 권력의 상황, 지배-피지배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양자 대립의 구조와 이 안에서의 지배자의 위치는 외부의 복잡한 장치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재생산된다. 따라서 근대권력은 정의와는 독자적인 내부의 처벌 체계를 갖게되며 이는 정상 normality의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그러나 평상시 폭력은 늘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권력과정은 교묘한 언어와 사인sign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모든 기재들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된다. 푸코는 폭력의 본

질을 숨기려는 권력의 교묘한 시도들에 더욱 가증스러운 모습을 발견한다. 푸코는 일견 평화스러워 보이는 권력의 일상적 작동을 전술과 전략의 연장선에서, “전투는 계속된다”는 말로 폭력적 본질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푸코는 근대권력의 특징으로 그의 목적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 자세를 취한다. 근대권력의 궁극적 목적은 전통적 법적 권력과 같이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뺏는 공제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권력, 즉 인간의 생명력을 극대화시키는 ‘생산적 권력’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을 의도에 따라 특정한 형태로 바꾸어 가는 폭력을 적용한 기술technology이며 어떤 경우에는 용감한 군인으로, 합리적 부르주아로, 부지런한 노동자로,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 기술은 18세기말에 새로운 진보와 문명의 영감이 되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을 유지, 확대하는 권력은 생명을 죽이는 권력보다 좋은 것임에 분명하지만, 이것은 특이한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서구인들의 삶은 근대에 이르러서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살도록, 맹렬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강요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연관된 또 다른 비판은 그가 지적한 판옵티시즘panopticism이다. 서구인들은 구조적인 감시의 시선

에 복속되어 있다. 근대 권력은 인간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 없이 복속시키고 관찰하고 개입한다. 이력서가 그의 정상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과정으로 통해 우리는 ‘근대의 영혼’, ‘작은 영혼’을 갖게된다. 인간에게 고백, 관찰 등을 통해 독특한 영혼, 즉 권력을 의식하고 ‘알아서 기는’ 기본적으로 영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기회주의적 의도가 몸에 각인 된다. 죽음만이 인간에게 남은 사적영역이 된다.

또한 권력은 자기 유지와 팽창의 의지를 갖고 있다. 권력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자위행위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이버 과학을 만들어 내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결코 순수하지 않으며 스스로 팽창하려는 권력의 속성으로 분석한다. 서구인들은 그들의 학생, 종업원, 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식을 감사하고 그들의 비밀스런 공간을 염탐하고 그들의 비정상을 발견하고 사랑을 핑계로 억압과 각종 폭력을 가하고 즐기는 변태적 행위에 탐닉되어 있다는 것이 푸코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력의 확대와 변신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권력의 비주체적 성격이 드러난다.

* * *

푸코는 또한 근대 서구의 지식 즉 학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그는 범죄학을 포함한 심리학 계열과 의학과 연관

된 인간에 대한 학문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에 서구 사회와 국가권력 내에 정착한 새로운 권력 기술 즉 현실과 실천에 기반 하여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철학, 정치학 및 각종 사회에 대한 고급 담론들은 이 권력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전략이 토론을 통해 수립되고 발전하는 장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 담론의 다가성polyvalence을 이야기한다.

푸코의 초기부터 일관된 논지는 인간 과학의 중심적인 분야들은 한계 상황들에 처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의 감시의 시선에서 바라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푸코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진리'가 상위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근대 서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규율권력과 생체권력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푸코는 나름대로 과학관을 가지고 있는 듯 하며, 그 모델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리학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푸코는 근대과학 자체가 본질적으로 폭력성에 근거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대과학은 보편적 감각 확실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이 인식 가능한 현상만이 정당한 지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근대과학은 힘에 대해서 그 본질

을 물을 수 없고(Why question) 다만 그 움직임과 양태만을 추적하는 'How question'만을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자연과 우주에서 발견하고 정당한 권리로 자연과 인간 사회에 휘두르는 힘은 폭력일 뿐이다. 푸코가 비과학적이라 비판한 인문, 사회과학이 과학적 방법론을 따랐다면 자위행위 금지와 같은 난센스는 피할 수 있었을 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욱 자연과학에 가까운 인간과학은 그가 봉사하는 권력을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

푸코가 제시하는 비판은 지식과 권력의 어떤 특정한 문제점이 아니라 근대서구의 지식과 권력의 독특한 방식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근대 서구문명의 전반적인 모습과 그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푸코는 그의 권력에 대한 저술을 마무리하면서 주체성의 재문제화를 주장한다. 이제 서구인들은 각자 자기 자신 안에서 명상 등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침묵과 명상을 통한 주체 만들기로 서구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니체가 제시했던 자신을 극복하는 초인의 철학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대안

권력으로 보인다. 푸코가 근대서구 권력을 인간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폭력과 그 변형으로 본 것은 근대 서구의 권력의 타당한 접근법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러나 근대서구의 권력은 여러 가지 가능한 종류의 권력 중에 독특한 권력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인간의 내면과 정신을 창조하는 새로운 종류의 권력과 지식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푸코가 거부했던 질문,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의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다시 제기해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인간의 내면 세계, 정신, 그리고 대안 철학에 대해서도 폭넓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와 정보사회

정보화 시대의 철학적 화두 세 가지:
기술, 언어, 실재

김상환 (서울대 철학과)

이 글은 정보사회가 만드는 미래의 새로운 존재론을 해석하는 한 시도이다. 여기서 철학적 성찰을 인도하는 실마리는 정보화와 관련된 세 가지 화두인 기술, 언어, 실재이다.

1. 기술: 자연과 인공의 임계점에 대하여 정보화사회의 물적기초는 극소전자 기술과 인공지능(컴퓨터) 기술이다. 정보화사회는 기술의 진화과정에서 비롯하므로, 이 사회를 반성할 때 떠오르는 일차적 화두는 기술의 본성이다. 인간에 대한 기술의 본성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되어왔다. 고대에서 기술과 인공은 자연과 대립적으로 파악되어 기술적 인공물은 자연에 대한 모방으로 그 역할은 자연에 대한 보충과 대리 정도였다. 인간이 존재론적 지평의 중심에 서던 근대에서 기술은 대상에 대한 도구적 조작 능력으로 파악되었다. 기술은 노동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설계와 그 사용능력이다. 근대의 질정에서 헤겔은 자연사물이 순수한 즉자적 존재자인 반면 기술적 인공은 정신의 내면성이 외면화된 것으로 간주하여, 인간이 산출한 기술적 인공을 자연사물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술적 인공이 자연사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이 고대기술관과 구별되는 근대기술관의 특징이지만, 기술적 인공은 여전히 정신보다 하위에 있는 것에 그친다. 하이데거에게서 기술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태도와 사고의 근본양상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정보화시대에는 인공지능의 발달에 힘입어 기계가 인간의 신경계통처럼 정보의 축적과 교환체계로 혹은 새로운 정보창출장치로 부각되었다. 기계는

인간과 유사하고 동등한 정보처리주체로 등장하였다. 나아가 양자는 상호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통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2. 언어: 기호의 자기지시성과 재현모델의 붕괴

기호는 극소전자기술이라는 물적기반을 작동시키는 요소이자 그 기반 위에서 산출되는 내용 자체이다. 정보는 어떤 생산설비나 여타 동원가능한 생산수단보다 커다란 생산력을 지닌다. 정보화시대는 어떤 성격의 기호(언어)를 통해 펼쳐지는가? 이 시대의 독특한 언어는 어떤 존재론을 전파하는가? 이 시대에서는 자연언어에서 인공언어로, 문자언어에서 비문자언어로의 전회가 이루어진다. 자연언어를 중심으로 언어일반의 본성을 해석하는 시대에 언어성립의 두 기본요소인 의미(지시대상)와 발화를 위한 분절화된 음가가 음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비문자언어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산출되는 시뮬라크르에 의해 무효화된다.

3. 실재: 가상화의 의미와 입체파 존재론의 시작

가상현실의 가상성은 철학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둔스 스코투스, 데카르트, 베르그송, 들뢰즈가 고안한 여러 개념들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사물은 사이버공간에서 원래의 토포스로부터 이탈하여 상이한 시간성 및 장소성을 획득한다. 디지털 언어의 번역과 재생의 과정에서 사물은 아날로그적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사물은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시공간적 유일무이성, 진품성 및 영원성, 신성한 제의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진법적인 디지털 언어의 번역에 통한 해체를 겪는다. 일반화, 추상화, 합리화된 사물은 등가적 교환의 원리에 따라 위계적 질서의 파괴를 겪고 동요와 혼란에 빠진다. 이 시대는 모든 형태, 원근, 유기적 질서가 붕괴되어 나타나는 입체파 화가들의 그림의 현실화이다.